

When I am in God, religion is completed

If 'I' regard everybody as my body, consciousness of 'I' disappears. When 'I' disappear, heaven exists in me and I become God. When you become one, you can enjoy eternal life. If one thinks God is separated from 'I', the thought is not religion. Religion is finished when 'I' am in God. The physical health exists in the health of mind.

When one's mind is healthy, the body is healthy

If one is disappointed or gives up hope, he /she is like a dead person. Only when one's mind is sound and cheerful, he/she can keep his/her healthy. Immortality is possible when one has an immortal mind. If one has a dead mind, going to the way of eternal life is impossible. If one goes toward the immortal way, you should live in the conviction of eternal life, live with the hope of immortality without disappointment. Then you cannot catch diseases and you can live a healthy life. When one is disappointed or loses hope, one's blood decays and he/she catches diseases.

This way is that of the mind. This man always tells that one can live forever only if he/she has the conviction of immortality.

Only when I am in God, I and God become one

Only when one engraves the face of the Savior in one's mind and keeps it, heaven is built and he/she is changed into God. Then God lives in the mind, changes the blood immortal, and the body is turned into that of God. Immortality is achieved by conceiving God's mind, which is the conviction of eternal life and a sacrificial mind, and it exists in one. And only when I exist in God and God is in me, God and I become one.



The Victor is pouring out the Dew Sprit for salvation of mankind

Therefore, heaven is in one, one exists in heaven. Today, the Savior came to the world to make the whole universe one. Making everyone as my body, the consciousness of 'you and I' disappears, heaven is accomplished in this world. You should have one in your mind. If there are 'you and I' or exists another existence, heaven is not accomplished. As heaven is in one, to go to heaven, one should become one, otherwise you cannot go to heaven. Therefore, This man speaks, " regard

everyone as my body" It means when you and 'I' disappear and become one, heaven is built.

When I regard everybody as my body, consciousness of 'I' disappears

Everybody, if one regards as my body, consciousness of 'I' disappears. When consciousness of 'I' disappears, heaven is built in me and I become God. Becoming God, one can exist forever, if there are two, they cannot exist forever, eternal

life is impossible for two. So you should struggle to become one.

When you are home, if you think of your children as your children, it is not suitable with our system. When you think that my son is me, I am my son, my family is I, and I am my family, the home finally becomes heaven and God. The Savior has done work to gather the people of the world being torn pieces and make one. To get eternal life, one should be God, in order to become God, first one should become one. Today the Victory Altar does work that enables all humanity to become one. In the Victory Altar, overcoming 'I' is victory. If one defeats oneself, 'I' dissipate and disappear; only God remains, so humanity himself becomes God. If one becomes God, like eternal life exists in one, eternal life exists in God.

Immortality exists when the spirit of death cannot stay, when the spirit of death does not come in, humanity becomes immortal and can live forever as God. To live forever, humanity's mind should be one. Like the words, "regard everyone as my body", it is natural that the thought come to mind in daily life, it is the Law of Liberty. In the beginning of the Victory Altar, This man told, "Leave everything with God entirely to be

saved." If I leave myself to God, I am in God, and then I become one with God and I am in heaven. If one thinks that God is separated from I, he/she does not know about religion. The will of religion is completed when I exist in God. Therefore, to become God, we should be in God, to be in God, we should leave everything with God.

The way of becoming God becomes the possession of God

If This man did not know the way of becoming God, He couldn't be a Victor.

A Victor can be in God, it cannot be in humanity. As when one is in God, He cranks down Satan, he/she can become a Victor of immortality. As your aim is to become God, individual consciousness of 'I' should disappear. Only if individual consciousness of 'I' disappears, one can become God and can live forever. Before one becomes God, he/she cannot achieve eternal life. Eternal life exists in God that defeats Satan. It cannot be in God that does not overcome Satan.*

Extracted from the sermon of the Savior on Feb 2nd, 2002

번역/ 김숙영 승사

가맛골과 부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한 뒤 탈출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었다.



김만철 선생 탈북기

부친 김정규(金正奎)는 1901년생으로 일본 모 대학에서 치과를 졸업한 치과 의사이다. 충청도 강경 출신으로 그곳에서 치과의를 했는데 1920년대 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독립군들을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다가 일본군들의 추격을 받아 독립군들을 따라 만주로 들어갔다. 만주에서도 치과를 하면서 독립운동 자금과 식량을 대주다가 일본군들의 추격을 피해 북한으로 건너오셔서 오지 산골로 들어가셨다. 이러한 항일정신이 인정되어 우리 집안은 성분이 좋은 편에 들어갔다.

그곳에는 일본놈들을 피해 들어온 우리 조선 사람들 3가구가 화전을 일구어 살고 있었다. 가맛골(거기 사람들은 가맛골이라고 했다)은 종성읍까지 나오려면 아침 일찍 떠나서도 밤늦게야 도착할 정도의 오지 중의 오지였고, 달구지 길조차 없었다.

부친은 그곳에 들어와서 짐승을 잡아서 동네 사람들과 식량을 바꾸어 먹고 살았다. 부친께서는 독립운동 할 때에는 총을 쏘 본 적이 없었는데 그곳에 와서 먹고 살러니가 독립군들에게서 얻은 사냥총으로 사냥을 했는데 천부적인 소질이 있었는지 명포수였다고 한다.

부친은 가맛골에서 리더 역할을 했던 거로 보인다. 가맛골은 산골 오지라 눈이 많이 오는데 부친이 그곳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곳 주민들은 오두막집을 지어 살았다. 부친은 독립군들을 따라다니면서 독립군들이 귀를잡을 지어 사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곳에서 귀를잡을 짓고 살았다. 귀를잡은 통나무를 세로 15센티미터, 가로 10미터 이상으로 잘라서 돼지우리 짓듯이 엮은 뒤에

빈 곳에 흙을 넣어 짓는다. 지붕은 새를 배어서 이엉을 엮어서 집을 지었다. 부친은 동네사람들에게 귀를잡 짓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가맛골에서 맞은 첫 겨울에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집에 갇혀서 겨우 내내 꼼짝 못한 적이 있었다. 그곳에 사는 동포들은 눈이 오면 그대로 갇혀서 계속 살아왔다고 했다. 눈이 올 때는 한 1미터 씩 오는데 눈이 녹지 않고 계속 쌓이고, 눈보라가 치면 오목한데 눈이 약 4-5미터 쌓인다. 그 경험 때문에 흔히 난 뒤로 눈 오기 전 가을에 집과 집 사이에 말뚝을 박아서 열 집과 밭줄을 매고, 화장실, 우물 등 가야 될 곳과 연결시키고 눈이 왔을 때 그 밭줄을 풀려서 굴처럼 만들어서 사용했다.

어떨 때는 눈높이가 10미터도 넘을 때도 있는데 겨우내 그 눈 속에서 살다가 사냥할 때만 눈 밖으로 나왔다고 한다. 어두우니까 짐승 잡은 기름을 짜서 그걸로 불을 켜다. 부친이 거기에 와서 산짐승을 잡기 전에는 짐승 기름이 없어서 나무를 깎아서 겨울 불혀서 불을 켜고 살았다고 한다. 물론 겨울을 나기 위해서 미리 나무도 많이 해 놓고, 먹을 것도 다 준비해 놓았다.

여름에는 살기가 매우 좋았다. 계곡이 깊고 커서 물이 좋아서 송어가 울 정도였다. 버드나무를 베어서 손가락

따뜻한 남쪽 나라를 찾아서

제7화 나의 아버지 김정규, 그리고 씨앗



항일운동을 하다가 일본군에 쫓겨 들어온 함경북도의 오지 가맛골. 그곳에서 나는 태어났다

만큼 굵은 결로 결을 짜서 고기 발을 놔서 올라가는 고기들이 거기에 걸리는 데 그것을 잡아먹을 수 있었다. 잔챙이들은 거기를 빠져 나가고 큰 놈들이 걸린다. 통발을 놔서도 잡기도 했다.

물론 겨울에도 소에 얼음구멍을 뚫고 자방을 쳐서 양쪽 구멍으로 빼놓으면 고기를 잡아먹을 수 있었다. 그때는 먹는 것 걱정 없이 재밌게 살았다.

나는 1940년 가맛골에서 태어났는데 가맛골에서 살 때 기억나는 일은 로스케(러시아 군인)들이 뼈뺀 배처럼 생긴 군모를 쓰고 붉은 말을 타고 총

을 차고 두 명이 왔는데 부친에게 로스케 말로 뭐라고 지껄이더니 부친이 아무 대꾸도 없자 말에서 내려서는 부친의 귀뚜라기를 한 대 갈기고는 돼지 우리로 가서 새끼 돼지 한 마리를 옆 구리에 끼고는 로스케 돈을 한 움큼 놓고 가버린 기억 딱 한 가지뿐이다. 이러한 가맛골에 관한 이야기는 모두 부친에게서 들은 것이다.

부친은 성격이 불같이 무섭고 대쪽같이 꼳꼳했다. 사람을 사귄 때에 한 번 거짓말한 것이 드러나면 다시는 그 사람과 상종을 안했다. 나에게도 정직한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고, 거짓말하면 무섭게 때려서 다시는 거짓말을 못하도록 하셨다.

나는 부친의 영향을 받아서 거짓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한다. 내 자식들도 거짓말을 하면 절대 용서를 안 하고 매로 다르셨다.

부친은 동네에서 인기가 좋았다. 치과과사이니 동네 이웃들에게 치과 진료료 다 해주었다. 나도 중학교 다닐 때까지 동네 왕진 다닐 때 부친을 따라서 치과 진료를 도와준 기억이 있다. 부친은 나보고 치과과사가 되라고 했는데 의사가 되기는 되었지만 치과 진료료가 없어서 내과 쪽으로 공부했다.

부친은 1960년 8월에 60세로 돌아가셨다. 당시 나는 21살이었으며 군대에서 복무중이었다. 모친은 부친보다 훨씬 일찍 돌아가셨는데 해방 전 막내 동생 동철이를 낳은 지 일주일 만에 산후풍으로 돌아가셨다.

씨앗 준비하는 데 오래 걸렸다

북한을 탈출하려는 엄중한 일을 계획하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언제 탈출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니 부친의 말씀이 떠올랐다. "너는 가을 용이니까(1940년 庚辰生) 가을에 일을 도모해야 일이 잘 된다. 가을에야 승천을 할 수 있어"라고 부친은 종종 내게 말씀하시곤 하셨

다. '그때 가을에 탈출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

도망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먹고사는 식량이였다. 인도네시아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먹고살 계획이니까 씨앗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농사짓는데 필요한 농기구 즉 쟁기, 낫, 호미 등과 식량을 씨앗을 모으기 시작했다.

그런데 북한은 여기처럼 씨앗을 종묘상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협동조합에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다. 더욱이 의사가 개인 농사도 없는데 씨앗을 구해서 뭐하느냐고 의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모을 수도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병원에 오는 농촌 환자들에게 무슨 씨앗을 좀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한 사람에게 많은 씨앗을 부탁하면 또 의심이 되니까 여러 사람한테 한두 가지씩 부탁을 함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조심했다. 환자들은 별거 아니니까 "열려마세요" 하고 다음에 검진 받으러 올 때 가지고 왔다. 거기다 담배씨도 모으고, 아편씨도 모았다. 아편씨는 여러 가지 치료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런 사람은 이런 씨, 저런 사람은 저런 씨를 가져오게 했다. 거기다 꼭 필요한 아스피린, 다이어전, 아편 등 다섯 가지 필수 재료를 챙겼다. 자루를 두 개 준비해서 같은 씨를들로 나누어서 하나를 잃어버려도 다른 하나만 있으면 되게끔 했다. 누구도 모르게 처음에는 혼자 했다. 바로 도망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준비하는데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준비해 둔 씨도 오래 나무면 썩어서 안 날 수 있으므로 너무 오래 된 씨는 교체해서 다시 챙겼다. 씨앗을 챙기는 일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어려웠다. 준비한 씨앗은 내 사무실 창고에 보관해 두었다.*